

로트만의 문화기호학 관점에서 본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비교 연구

제주올레길, 산티아고 순례길, 구마노고도, 프리덤 트레일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Signage Systems on Cultural Routes from Lotman's Cultural Semiotic Perspective

Focusing on the Jeju Olle Trail, Camino de Santiago, Kumano Kodo, and the Freedom Trail

주 저 자 : 정성모 (Chung, Sung Mo)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rociochung@hyc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3.486>

접수일 2026. 08. 14. / 심사완료일 2026. 08. 28. / 게재확정일 2026. 09. 07. / 게재일 2026. 09. 30.

Abstract

Cultural-route signage functions as both a wayfinding system and a semiotic system conveying route identity and cultural meaning. This study analyzed 16 purposively selected sign types from the Jeju Olle Trail, Camino de Santiago, Kumano Kodo, and the Boston Freedom Trail, comparing how route identity, directional guidance, route confirmation, and place identification are realized, and interpreting the results through Lotman's concepts of the semiosphere, cultural center, boundary and translation, and cultural memory. Standardization maintained route consistency through the continuity of core signs and information rules, while variation adapted materials, forms, and information structures to different functions and local contexts. The four routes showed relatively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respectively, a Local Sign Integration Type, a Common Symbol Distributed Variation Type, an Environment-Responsive Heritage Mediation Type, and a Materialized Linear Memory Connection Type. This study offers a framework for interpreting cultural-route signage as a semiotic system that translates shared cultural codes into place-specific wayfinding forms.

Keyword

Cultural Route(문화적 경로), Signage System(표지체계), Wayfinding(웨이파인딩), Cultural Semiotics(문화기호학), Juri Lotman(유리 로트만)

요약

문화적 경로의 표지는 이동정보와 경로 정체성 및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체계이다. 본 연구는 제주올레길·산티아고 순례길·구마노고도·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에서 선정한 16개 표지유형을 대상으로 경로 정체성·방향 지시·경로 확인·장소 식별의 구현방식을 비교하고, 로트만의 기호계·문화적 중심·경계와 번역·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표준화는 핵심기호의 지속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번역은 기능과 환경에 따라 재료·형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제주올레길은 ‘지역기호 통합형’, 산티아고 순례길은 ‘공동상징 분산변이형’, 구마노고도는 ‘환경조응적 유산매개형’,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물질적 선형 기억연결형’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문화코드 유지와 장소별 번역이 결합된 해석틀을 제시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문화적 경로의 구성과 경험 특성
- 2-2. 웨이파인딩과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
- 2-3. 로트만의 문화기호학과 표지의 의미작용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3-1. 연구대상 및 사례선정
- 3-2. 표지기능의 조작적 정의
- 3-3.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분석틀
- 3-4. 분석절차 및 비교방법

4.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분석 결과

- 4-1. 제주올레길 표지체계 분석
- 4-2. 산티아고 순례길 표지체계 분석
- 4-3. 구마노고도 표지체계 분석

- 4-4.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표지체계 분석
- 4-5. 동일기능 간 비교분석
- 4-6.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적 종합해석
- 4-7.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유형화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경로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이동선인 동시에, 특정 지역과 집단의 역사문화환경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공간구조이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문화적 경로를 사람·재화·사상·지식 및 가치의 지속적인 이동과 교류를 통해 형성된 동적 체계로 규정하고, 그 가치는 개별 유산의 합이 아니라 요소 간 관계와 전체성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¹⁾ 따라서 문화적 경로는 자연경관, 종교적 순례, 문화유산 및 역사 기억이 방문자의 이동을 통해 연결되고 재해석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경로에서 이러한 연속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매개가 표지체계이다. 보행자는 표지를 통해 경로의 정체성과 진행방향, 현재 위치 및 장소의 성격을 파악한다. 린치(Lynch)는 환경의 가독성을 공간의 각 부분이 쉽게 식별되고 일관된 패턴으로 조직되는 정도로 설명하고, 명료한 환경이미지가 이동뿐 아니라 장소의 기억과 의미 형성에도 관여한다고 보았다.²⁾ 패시니(Passini)도 웨이파인딩을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파악하고, 공간구조·동선·표지·지도 등의 정보를 상호 연결된 자원체계로 조직해야 한다고 하였다.³⁾ 이에 따라 문화적 경로의 표지는 개별 방향안내 시설이 아니라, 방문자가 경로 전체를 연속된 공간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정보체계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적 경로의 표지는 이동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로의 역사적 의미와 장소 정체성을 방문자에

게 전달해야 한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도 문화적 경로의 정보·해설·전시 기반시설이 경로의 역사적 의미와 진정성 및 완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⁴⁾ 따라서 문화적 경로의 표지디자인에서는 정보의 명료성뿐 아니라 핵심 문화가치의 선택과 이를 표현하는 색채·형태·문자·상징·재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표지는 경로 내부의 문화코드를 외부 방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각언어로 변환하는 문화적 매개체이기도 하다.

기존 웨이파인딩 연구는 환경의 가독성, 인지도, 공간탐색, 의사결정 및 정보의 배치와 이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맨델은 표지의 의미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디자이너가 의도한 의미와 이용자가 해석한 의미의 관계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⁵⁾ 다만 이러한 접근은 주로 건축물과 시설 내부의 방향위치정보를 중심으로 하므로, 자연·종교·유산 역사기억과 같은 문화코드가 경로 전체에서 반복·변형되고 이동경험과 결합하는 방식까지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에는 경로의 일관성을 위한 표준화와 설치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변이가 동시에 요구된다. 색채·상징·번호·재료의 반복은 경로의 연속성을 형성하지만, 자연과 도시, 산악과 평지, 벽면과 보도 등 설치환경에 따라 표지의 형태와 배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표지의 조형적 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동일한 표지기능이 경로별로 어떠한 기호자원을 통해 구현되며, 경로 전체에서 표준화와 변이가 어떻게 조직되는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 ICOMOS, 『The ICOMOS Charter on Cultural Routes』, ICOMOS, 2008, pp.1-4.

2)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pp.1-5.

3) Romedi Passini, 'Wayfinding Design: Logic, Application and Some Thoughts on Universality', Elsevier Science Ltd, Design Studies, Vol.17, No.3, 1996. 07. pp.319-327.

4) ICOMOS, Op. cit. 2008, pp.9-10.

5) Lauren H. Mandel, 'Attributing and Defining Meaning to the Built Environment: The Semiotics of Wayfinding', Wile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46, No.1, 2009. 11. pp.1-6.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적 경로의 표지를 기능적 정보전달체계이자 문화적 의미를 생성하는 기호체계로 보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이동환경을 지닌 제주올레길, 산티아고 순례길, 구마노고도 및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의 표지체계를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네 경로에서 표지기능과 기호자원 및 문화코드가 결합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동일기능 간 비교를 통해 공통 정보구조와 문화적·공간적 차이를 밝힌다. 이어 표준화와 변이의 관계를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에 따라 종합해석하여 네 경로 표지체계의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네 문화적 경로의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및 장소 식별 표지는 어떠한 기호자원과 문화코드를 통해 의미작용을 형성하는가?

연구문제 2: 동일한 표지기능은 네 경로에서 어떻게 구현되며, 표준화와 변이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네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는 로트만의 기호계, 문화적 중심, 경계와 번역 및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며,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되는가?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질적 비교사례분석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문화적 경로와 웨이파인딩 및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분석대상은 네 경로에서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및 장소 식별을 대표하는 표지유형 각 1개씩, 총 16개 표지유형으로 구성하였다. 사례별 기능정보, 기호자원, 문화코드 및 의미작용을 분석하고, 동일기능을 경로 간에 비교하여 표준화와 변이를 파악하였다. 이어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에 따라 문화적 중심, 경계와 번역 및 문화적 기억의 작동방식을 종합해석하여 경로별 표지체계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문화적 경로의 구성과 경험 특성

문화적 경로는 여러 장소를 물리적으로 연결한 노선 이 아니라, 이동을 통해 장소·유산경관과 문화적 기억 이 관계를 형성하는 체계이다. 전종한은 금강산 가는 길을 장기간의 이동과 교류 및 장소경험이 축적된 선

형적 유산체계로 파악하고, 공간적·역사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이 결합된 복합적 이동체계로 설명하였다.⁶⁾ 이에 문화적 경로의 가치는 개별 지점의 특성뿐 아니라 지점들이 이동의 흐름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의해 구체화된다.

문화적 경로의 의미는 이용자가 경로를 이동하며 장소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김지영은 경로의 역사적·관계적 가치와 유산의 의미가 수행적 이동, 경관의 체험 및 장소 간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고 보았다.⁷⁾ 다만 본 연구의 ‘문화적 경로’는 ICOMOS가 규정한 역사적 문화경로와 동일한 제도적 범주로 한정하지 않는다. ICOMOS는 문화경로를 장기간 지속된 사람·재화·사상 및 가치의 이동과 교류에서 형성된 역사적 체계로 규정한다.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적 관점을 수용하되,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동로뿐 아니라 문화자원과 장소기억을 보행과 표지체계를 통해 연결한 경로까지 포함하는 분석범주로 사용한다.

문화적 경로는 광범위한 공간에 분산된 요소들로 구성되므로, 이용자가 경로의 연속성과 장소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해야 한다. ICOMOS도 정보·해설 기반시설이 경로의 역사적 의미와 진정성 및 완전성을 존중하면서 전체 환경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⁹⁾ 따라서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는 이동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분산된 장소와 문화자원을 연속된 경로경험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이해할 수 있다.

2-2. 웨이파인딩과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

웨이파인딩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보를 지각·해석하고 이동에 필요한 결정을 수립·실행하는 인지적·행동적 과정이다. 패시니는 이를 의사결정, 결정의 실행 및 환경정보의 처리로 이루어지는 공간문제 해결과정으로 설명하였다.¹⁰⁾ 따라서 경로 표지는 웨이파인딩 자체가 아니라, 이용자의 판단과 이동에 필

6) 전종한, ‘「금강산 가는 길」의 유산적 가치와 연구 의제-문화 루트(cultural route) 개념을 통한 접근-’,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기전문화연구, Vol.47, No.1, 2026. 06. pp.7-12.

7) 김지영, ‘금강산 여정의 동적 유산화-근대이행기 여행기 속 수행적 모빌리티와 경관 체현-’,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기전문화연구, Vol.47, No.1, 2026. 06. pp.6, 9-10.

8) ICOMOS, Op. cit. 2008, pp.1-4.

9) Ibid., pp.9-10.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리적·시각적 매개체로 볼 수 있다.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는 기능과 이동단계에 따라 표지를 배치하고, 이를 일관된 시간언어와 설치방식으로 연결한 체계이다. 칼로리와 반덴에인덴은 사인체계를 정보내용체계, 그래픽체계 및 하드웨어체계로 구분하였다. 정보내용체계는 전달정보와 위계 및 설치위치를, 그래픽체계는 문자·색채·상징·화살표와 레이아웃을, 하드웨어체계는 형태·크기·재료·고정방식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포함한다.¹¹⁾ 이러한 구분은 문화적 경로의 표지를 정보내용, 시각표현 및 설치환경이 상호 연결된 체계로 파악하게 한다.

이를 문화적 경로의 이동과 정보 요구에 적용하여, 본 연구는 기존 사인체계의 식별·방향 기능을 경로 소속성의 인지와 이동 중 반복적인 확인까지 포괄하도록 확장하고, 표지기능을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및 장소 식별로 재구성하였다.¹²⁾ 네 기능은 서로 배타적인 표지유형이 아니라 하나의 표지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조작적 정의와 판별기준은 3·2에서 제시한다. 또한 문화적 경로는 서로 다른 자연·도시환경과 생활·유산공간을 통과하므로, 표지체계에는 핵심 기호자원의 반복을 통한 표준화와 설치환경에 따른 형태·재료·배치의 변이가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는 웨이파인딩을 지원하는 기능적 정보체계이자 경로의 정체성과 장소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적 기호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2-3. 로트만의 문화기호학과 표지의 의미작용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은 개별 기호보다 기호들이 상호작용하는 문화적 공간에 주목한다. 그는 기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전체적 공간을 기호계(semiosphere)로 규정하고, 개별 언어와 기호는 기호계 안에서 다른 기호체계와 관계를 맺을 때 기능한다고 보았다.¹³⁾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적 경로의 표지는 독립된 시각기호가 아

니라 경로의 역사·종교·자연환경 및 장소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화코드가 상호작용하는 기호체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기호계의 경계는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기호체계를 연결하는 번역의 공간이다. 로트만은 경계를 외부의 정보를 내부의 언어로 변환하고, 내부의 정보를 외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이중언어적 번역기제로 설명하였다.¹⁴⁾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도 경로 내부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을 외부 방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색채·문자·상징·형태 및 재료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코드는 기능과 설치환경에 따라 선택·축약·결합 또는 변형되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기호계는 중심과 주변의 불균등한 구조로 이루어지며, 중심에는 지배적 언어와 핵심 코드가 위치하고 주변과 경계에서는 기호체계 간 접촉을 통해 변화와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또한 기호계는 문화적 기억을 통해 시간적 깊이를 유지한다.¹⁵⁾ 문화적 경로에서는 경로를 대표하는 상징·색채·문자의 반복이 문화적 중심과 경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기능과 설치환경에 따라 형태·재료·배치가 달라지면서 변이가 나타난다. 표지에 반복되는 상징과 장소의 역사정보는 과거의 사건과 문화적 가치를 현재의 경로정보와 연결한다. 다만 표준화와 변이는 로트만이 직접 제시한 개념쌍이 아니라, 본 연구가 문화적 중심과 경계의 번역관계를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해석축이다. 따라서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는 경로의 기능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코드를 번역하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의미작용의 체계로 볼 수 있다.

3.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3-1. 연구대상 및 사례선정

본 연구는 문화적 배경과 이동환경이 다른 제주올레길, 산티아고 순례길, 구마노고도 및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네 경로는 각각 자연·생활문화, 종교·지역문화, 신앙·자연환경·문화유산, 역사·유적·집단기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연속적 보행을 지원하는 표지체계를 갖추어, 기능정보와 문화코드의 결합 및 표준화와 변이를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10) Romedi Passini, Op. cit. 1996, pp.321-322.

11) Chris Calori, David Vanden-Eynden, 『Signage and Wayfinding Design: A Complete Guide to Creating Environmental Graphic Design Systems』, 2nd ed., John Wiley & Sons, Inc., 2015, pp.81-83.

12) Ibid., pp.91-95.

13) Juri Lotman, 'On the Semiosphere', Wilma Clark trans., University of Tartu Press, Sign Systems Studies, Vol.33, No.1, 2005. 12. pp.206-208.

14) Ibid., pp.208-212.

15) Ibid., pp.212-215, 219.

분석사례는 주기능이 명확하고 경로에서 반복되거나 정체성을 대표하며, 기호자원·설치환경·명칭·사용방식이 운영기관 자료와 문헌으로 확인되는 표지를 목적표집하였다. 분석단위는 개별 표지나 이미지가 아닌 동일한 기능과 디자인 원칙을 공유하는 표지유형이며, 복합기능 표지는 주된 정보와 요구 행동에 따라 분류하였다. 전체 분석대상은 네 경로에서 기능별 한 유형씩 선정 한 16개 표지유형으로, [표 1]과 같다.

[표 1] 경로별 기능과 분석대상 표지유형

구분	제주 올레길	산티아고 순례길	구마노 고도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문화적·공간적 성격	자연·생활문화를 있는 보행길	종교·지역문화를 있는 순례길	신앙·자연·유산이 결합된 순례길	역사유적·집단기억을 잇는 도시 탐방로
경로 정체성	20코스 사·중점 표시물·스텝 시설	생장피드포르 안내소 복합표지	목조 안내판·자연석 표지석	지도·유적정보 종합안내판
방향 지시	파랑·주황 나무화살표	노란 화살표	거라·화살표 목제 방향표지	화살표 결합 원형 보도마커
경로 확인	파랑·주황 리본	반복되는 조가비 마커	연속번호형 색채 경로표지	연속적인 붉은 벽돌선
장소 식별	제주 올레 15코스 '백일홍길' 장소명 표지	갈리시아 경계표지석	대문판 세계유산 기념비	역사유적 깃발형 표지

3-2. 표지기능의 조직적 정의

본 연구는 문화적 경로에서 발생하는 정보 요구를 바탕으로 표지기능을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및 장소 식별로 구분하였다. 기존 사인체계의 식별 표지와 방향표지 구분을 수용하되, 장거리 이동에서 요구되는 경로 소속성의 인지와 이동 중 반복적인 확인을 반영하여 네 기능으로 세분화하였다.¹⁶⁾ 기능별 조직적 정의와 판별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표지기능의 조직적 정의와 판별기준

구분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장소 식별
조직적 정의	특정 경로의 소속성과 정체성을 인식	분기점이나 이동구간에서 진행방향을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음	특정 지점이나 구간을 명칭·성격·의

16) Chris Calori, David Vanden-Eynden, Op. cit. 2015, pp.91-95.

	하게 하는 기능	을 선택하게 하는 기능	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능	마를 인식하게 하는 기능
핵심 판별 질문	어느 경로에 속하는지를 나타내는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가?	올바른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가?	도착한 장소가 어디이며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주는가?
주요 판별 요소	경로명, 로고, 대표 상징, 고유색채	화살표, 지시문자, 방향성을 지닌 상징과 배치	반복 표시, 리본, 색띠, 연속선, 번호표지	장소명, 구간명, 경계표지, 유적명, 해설정보
다른 기능과의 구분	특정 장소가 아닌 전체의 소속성과 정체성 제시	이동방향에 관한 명시적 선택정보 제공	새로운 방향의 선택보다 현재 경로의 연속성 확인	경로 전체가 아닌 특정 장소나 구간 식별

표지기능은 표지의 형태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달 정보, 설치위치 및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인지와 행동을 함께 고려하여 판별한다. 예를 들어 조가비가 경로의 진입부에서 순례길의 소속성을 나타내면 경로 정체성으로, 이동구간에서 반복되어 현재 경로를 확인하게 하면 경로 확인으로 분류한다. 하나의 표지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와 요구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주기능을 판별하고, 나머지는 보조기능으로 기록한다. 색채·문자·상징·형태·재료 및 배치는 기능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각 기능을 구현하는 기호자원으로 분석한다.

3-3.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분석틀

본 연구는 16개 표지유형을 기능정보, 기호자원, 문화코드, 표준화와 변이 및 문화기호학적 의미작용의 관계로 분석한다. 먼저 표지의 주기능과 보조기능을 판별하고, 이를 구현하는 시각적·물질적 요소와 문화적 의미를 살펴본다. 이어 분석대상 표지유형에서 핵심 기호가 기능 간 반복·변형되는 양상을 비교하고,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을 통해 그 의미작용을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표준화와 변이의 조직방식, 문화코드와 환경·재료·기억의 결합관계를 종합하여 경로별 표지체계의 유형을 도출한다. 분석틀은 [표 3]과 같다.

[표 3]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분석틀

분석영역	세부 분석항목	분석기준
기능정보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장소 식별	표지가 이용자에게 무엇을 인식·판단·확인하게 하는가?
기호자원	색채, 문자, 상징, 형	기능정보와 경로의 특성이

	태, 재료, 배치	어떠한 시각적·물질적 요소로 표현되는가?
문화코드	자연환경, 생활문화, 종교적 순례, 문화유산, 역사기억	어떠한 문화적 가치가 기호자원과 결합하는가?
표준화와 변이	핵심 기호의 반복, 기능 간 공유, 형태·재료·배치의 변화	경로의 일관성은 어떻게 유지되며, 기능과 설치환경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문화기호학적 의미작용	기호계, 문화적 중심, 경계와 번역, 문화적 기억	경로의 문화코드가 시각언어로 어떻게 번역되고 문화적 기억과 연결되는가?

기호자원은 이미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색채·문자·상장·형태·재료 및 배치로 구분한다. 문화코드는 이러한 기호자원이 경로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종교적 순례, 문화유산 및 역사기억과 결합하여 형성하는 의미로 파악한다. 해석은 이미지에서 확인되는 표현과 운영기관 및 관련 문헌에 명시된 정보를 근거로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작의도나 이용자의 실제 인식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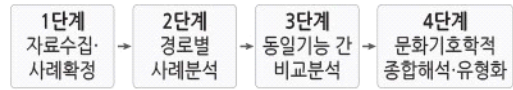
표준화는 핵심 색채·상장·문자·재료 또는 표시원칙이 여러 기능과 이동구간에서 반복되어 경로의 일관성을 형성하는 양상이며, 변이는 핵심 기호를 유지하면서 기능과 설치환경에 따라 형태·재료·크기 및 배치가 달라지는 양상이다. 공유되는 핵심 기호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표지는 변이가 아닌 별개의 표지유형으로 구분한다.

문화기호학적 의미작용은 로트만이 제시한 기호계, 문화적 중심, 경계와 번역 및 문화적 기억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¹⁷⁾ 서로 다른 기능의 표지가 공통 기호자원을 통해 하나의 경로체계에 조직되는 방식, 내부의 문화코드가 외부 방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각언어로 변환되는 방식 및 장소의 기억이 이동과정에서 반복·재구성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다만 표준화와 변이는 로트만이 직접 제시한 개념쌍이 아니라, 본 연구가 문화적 중심과 경계의 번역관계를 표지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한 해석축이다. 표지체계 유형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각 경로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표준화와 변이 및 문화적 의미작용의 결합방식을 기준으로 도출한다.

3-4. 분석절차 및 비교방법

분석은 자료수집 및 사례확정, 경로별 사례분석, 동일기능 간 비교분석, 문화기호학적 종합해석 및 유형화의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전체 분석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분석절차

첫째, 2026년 8월 1~14일 확인한 네 경로의 운영기관 공개자료·안내문서·지도 및 표지 이미지를 수집하고, 선정기준과 기능별 조작적 정의에 따라 16개 표지유형을 확정하였다.

둘째, 각 표지의 기능정보와 색채·문자·상장·형태·재료·배치를 분석하고, 이들이 자연환경·생활문화·종교적 순례·문화유산·역사기억과 결합하는 방식을 해석하였다. 모든 사례에 동일한 판별기준과 분석틀을 적용하였으며, 표지의 명칭·사용방식·문화적 배경은 운영기관 자료와 문헌을 상호 확인하고 시각적·물질적 특성은 이미지에서 판독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질적 분석의 일관성과 해석 근거의 추적가능성을 높여 신뢰성을 보완하였다. 결과는 기능정보·기호자원·문화코드·의미작용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동일기능별로 네 경로를 횡단 비교하여 공통정보구조와 문화적·공간적 환경에 따른 표현 차이를 도출하였다.

넷째, 비교결과를 경로별로 재종합하여 핵심기호의 반복은 표준화로, 기능과 설치환경에 따른 형태·재료·크기·배치의 변화는 변이로 분석하였다. 표준화와 변이 및 문화코드·환경·재료의 관계를 로트만의 문화적 중심, 경계와 번역 및 문화적 기억으로 해석하여 경로별 유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16개 표지유형에서 확인된 문화기호학적 특성에 한정하며, 각 경로의 모든 표지에 대한 일반화로 확대하지 않는다.

4.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네 문화적 경로의 표지를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및 장소 식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경로별로 기능정보와 기호자원 및 문화코드의 결합방식을 살펴보고, 이어 동일기능 간 비교와 문화기호학적 종합해석을 통해 표준화와 변이의 조직방식

17) Juri Lotman, Op. cit. 2005, pp.208-215, 219.

및 경로별 유형을 도출하였다.

4-1. 제주올레길 표지체계 분석

제주올레길 표지체계는 시·종점 표시물, 나무화살표, 리본, 장소명 표지 등 형태와 설치방식이 다른 표지로 구성되며, 자연경관과 생활공간에 분산·반복되어 경로의 연속성을 형성한다.¹⁸⁾ 해안·오름·밭담·마을은 자연 환경과 생활문화가 결합된 생태문화자원이며,¹⁹⁾ 간세는 제주 조랑말의 형상으로 지역 정체성을 나타낸다.²⁰⁾ 분석대상에서 확인되는 파랑·주황과 현무암은 이러한 지역성을 이동정보와 연결한다.

경로 정체성의 대표 표지유형은 제주올레 20코스 시·종점 표시물과 스탬프 시설이다. 현무암에 코스 번호·지도·스탬프 시설을 결합하여 코스의 소속성과 이동의 시작·완료를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로 정체성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²¹⁾

방향 지시의 대표 표지유형은 나무 기둥의 파란색·주황색 화살표이다. 두 색은 각각 정방향과 역방향을 구분하며,²²⁾ 갈림길에서 이동방향을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방향 지시를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경로 확인의 대표 표지유형은 나뭇가지와 전봇대 등에 반복 설치된 파란색·주황색 리본이다. 화살표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게 하는 것과 달리, 리본은 이동구간에서 현재 경로의 연속성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로 확인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장소 식별의 대표 표지유형은 제주올레 15코스의 ‘백일홍길(Baekilhong Trail)’ 장소명 표지이다. 코스 번호와 장소명, 배롱나무의 한 영문 정보를 제시하여 코스 내부의 특정 구간을 구분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소 식별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이상의 기능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18) (사)제주올레, ‘제주올레길 표지’, (2026.08.11.)
old01.jejuolle.org/info/prepare/sign.do

19) 허명진, 한봉호, 박석철, ‘제주 올레길 생태문화자원 경관생태학적 해석기법 연구’,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Vol.49, No.2, 2021. 04. p.128.

20) 강홍균, ‘제주올레에 “간세 사인” 이점표 세워진다’, 경향신문, 2010.04.26. (2026.08.11.)
www.khan.co.kr/article/201004261651581

21) (사)제주올레, Op. cit. 2026.08.11.

22) Ibid.

[표 4] 제주올레길 표지체계의 기능별 분석

항목	분석내용	
표지 사진		
기능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기호 자원	숫자 ‘20’, 파란색 프레임, 검은색 현무암, 코스 지도·스탬프 시설	파란색·주황색 화살표, 목재 기둥, 서로 반대되는 방향 배치
기능 정보	코스 번호·시·종점 식별, 전체 경로·주요 경유지 안내, 스탬프 기록	정·역방향 구분, 갈림길에서의 이동방향 선택
문화 코드	제주 바다·현무암·해안·돌담 경관, 걷기·원주 경험	제주 바다의 파란색, 감귤의 주황색, 자연환경과 조응하는 목재
의미 작용	코스 식별과 제주올레 체계로의 귀속, 현무암·주변 경관을 통한 경로정보의 장소화	색채·방향성 결합에 의한 이동 유도, 색채 반복에 의한 방향정보의 연속성과 제주올레 정체성 유지
표지 사진		
기능	경로 확인	장소 식별
기호 자원	파란색·주황색 직물 리본, 나뭇가지·전봇대 등의 기존 지지체, 반복 배치	파란색 프레임, 검은색 정보판, 코스 번호 ‘15’, 한영문 장소명 설명
기능 정보	현재 경로 확인, 다음 표지까지의 경로 연속성 안내	코스 번호·장소명 식별, 배롱나무의 생태정보 제공
문화 코드	제주 바다·감귤의 색채, 제주 바람, 자연·마을·농경·자·도로를 잇는 올레길	배롱나무(백일홍), 제주 농촌의 식생과 밭길·생활경관, 한 영문을 통한 지역문화 전달
의미 작용	리본 반복을 통한 이질적 공간의 연결, 기존 지지체와 주변 경관의 결합, 움직임·색채 대비를 통한 가시성·경로 정체성 유지	식물명에 의한 이동구간의 장소화, 코스체계와 개별 장소의 연결, 지역 식생·생활경관의 문화적 기억 형성

종합하면 제주올레길은 파랑·주황과 지역기호를 공통적으로 유지하면서 현무암 표시물·목재 화살표·직물 리본·장소명 표지로 매체를 달리한다. 이는 자연·생활문화의 기호를 경로 정체성·방향 지시·경로 확인·장소 식별에 적용하면서, 공통 색채체계의 표준화와 기능·설치 환경에 따른 변이를 함께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산티아고 순례길 표지체계 분석

산티아고 순례길은 유럽 각지에서 스페인 갈리시아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어지는 초국가적 순례경로이다. 카미노 프란세스는 199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2015년 북부 순례길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²³⁾ 또한 1987년 유럽평의회가 인증한 최초의 유럽문화경로이다.²⁴⁾ 여러 지역을 통과하는 경로의 연속성은 조가비와 노란 화살표라는 공통기호를 통해 유지된다. 조가비는 야고보 순례의 역사적 상징이며, 노란 화살표는 현대 순례길의 방향기호로 사용된다.²⁵⁾ 갈리시아 표지규정에서도 조가비와 노란 화살표를 각각 순례길의 공통 그래픽과 진행방향 기호로 구분하고 있다.²⁶⁾

경로 정체성의 대표 표지유형은 생장피드포르 순례자 안내소 입구의 복합표지이다. 조가비와 청색·황색, 지역 순례자협회의 문장 및 다언어 표기를 함께 사용하며, 안내소와 순례길 진입지점을 식별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로 정체성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방향 지시의 대표 표지유형은 벽·바위·도로 등 다양한 환경표면에 표시된 노란 화살표이다. 노란 화살표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방향표식으로 확산·유지되어 왔으며,²⁷⁾ 갈리시아 표지규정에서도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로 규정되어 있다.²⁸⁾ 갈림길과 이동구간에서 진행 방향을 직접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향 지시를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경로 확인의 대표 표지유형은 보도와 벽면 등에 반복적으로 설치된 조가비 마커이다. 조가비의 반복을 통해 이동 중 현재 경로의 연속성을 확인하게 하며, 배열 방향이 진행방향을 나타내는 사례에서는 방향 지시를 보조기능으로 수행한다.²⁹⁾ 따라서 현재 경로의 지속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로 확인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장소 식별의 대표 표지유형은 ‘GAUCIA’ 지역명과 순례기호가 결합된 화강암 경계 표지석이다. 지역명과 문장 및 순례길의 공통기호를 함께 제시하여 갈리시아의 진입지점과 지역경계를 식별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소 식별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이상의 기능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산티아고 순례길 표지체계의 기능별 분석

항목	분석내용	
표지 사진		
기능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기호 자원	조가비, 청색·황색, 지역 레저협회 문장, 다언어 기, 안내소 출입구 배치	노란색 화살표, 벽·바위·도로 등의 환경표면, 도색 방식, 크기·형태의 변이
기능 정보	순례자 안내소와 순례길 입지점 식별, 진행방향 순례자 안내정보 제공	갈림길과 이동구간에서 진행방향 제시 및 이동방향 선택
문화 코드	야고보 순례의 조가비 상징, 초국가적 순례문화, 지역 순례자협회의 운영 정체성, 다언어 확대	산티아고 순례길의 공통 방향기호, 지역별 환경표면과 현장표시 방식
의미 작용	공통 순례기호와 지역 운영 기호의 결합을 통해 초국가적 순례경로와 개별 안내지점을 연결	노란 화살표의 반복을 통해 공통된 방향정보를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설치환경에 맞게 표지형식을 변이
표지 사진		
기능	경로 확인	장소 식별
기호 자원	조가비 형태, 금속·석재 마커, 보도·벽면 삽입, 반복 배치	'GAUCIA' 문자, 화강암 표지석, 지역 문장, 십자가·조가비, 유럽문화경로 표식, 표면의 서명·흔적

23)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Routes of Santiago de Compostela: Camino Francés and Routes of Northern Spain’, (2026.08.11.) whc.unesco.org/en/list/669/

24) Council of Europe, ‘Saint James Way’, (2026.08.11.) www.coe.int/en/web/cultural-routes/saint-james-way

25) Turismo de Galicia, ‘La flecha amarilla y la vieira’, (2026.08.11.) www.caminodesantiago.gal/es/descubre/el-camino-en-la-actualidad/la-flecha-amarilla

26) Xunta de Galicia, ‘Orden de 5 de noviembre de 2015’, 2015, pp.43471-43477.

27) Turismo de Galicia, Op. cit. 2026.08.11.

28) Xunta de Galicia, Op. cit. 2015, pp.43475-43477.

29) Ibid.

기능 정보	현재 경로 확인, 구간 간 경로의 연속성 확인	갈리시아 진입지점과 지역 경계 식별, 산티아고 순례 경로의 지속 확인
문화 코드	야고보 순례의 조가비 상징, 지역별 재료와 도시·역사경관	갈리시아 지역 정체성, 야고보 순례의 상징, 유럽문화경로, 순례자의 이동 흔적
의미 작용	동일한 조가비의 반복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과 재료를 하나의 연속된 순례경로로 연결	지역명과 순례기호의 결합을 통해 갈리시아의 지역경계를 산티아고 순례경로와 연결하고, 표면의 서명·흔적을 통해 공식 표지와 개인의 이동기록이 중첩

종합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은 조가비와 노란 화살표라는 공통기호를 반복하여 경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설치환경과 지역에 따라 재료·크기·표시방식과 지역기호를 달리한다. 따라서 공통된 기호규칙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차이를 수용하는 표지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4-3. 구마노고도 표지체계 분석

구마노고도는 기이산지의 구마노삼산과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참예도의 총칭으로, 자연승배·불교·수겐도 등의 종교문화가 결합된 문화경관의 일부로 200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이산지의 영장과 참예도’에 등재되었다.³⁰⁾ 경로를 따라 형성된 왕자(王子, Oji)는 순례과정에서 참배와 휴식의 지점으로 기능하였다.³¹⁾ 본 연구는 구마노고도 전체가 아니라 분석자료가 확보된 나카헤치와 대문판 구간의 표지유형을 대상으로 한다.

구마노고도의 표지는 목재와 석재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며 산림경관과의 조율이 두드러진다. 와카야마현의 공공사업 경관형성 지침은 표지·사인의 정보와 설치 수량·배치 및 구조·형태·의장을 정비하여 주변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마노 참예도 나카헤치 특정경관형성지역에서는 시설물이 참예도 조망점에서 주변 산릉의 스카이라인보다 돌출되지 않고 형태·의장·소재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한다.³²⁾ 이러한 경관관리 원칙은 표지를 독립된 시각물보다 주변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는 정보매체로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표지의 형태적 동일성뿐 아니라 목재·석재와 산림경관의 관계 및 지도·거리·번호·세계유산 표기 등 기능별 정보구성의 차이를 함께 분석하였다. 선정한 네 표지유형은 진입지점의 소속 확인, 이동 중 방향 선택과 위치 확인, 특정 장소의 식별이라는 서로 다른 정보 요구에 대응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표지의 형태적 동일성뿐 아니라 목재·석재와 산림경관의 관계 및 지도·거리·번호·세계유산 표기 등 기능별 정보구성의 차이를 함께 분석하였다. 선정한 네 표지유형은 진입지점의 소속 확인, 이동 중 방향 선택과 위치 확인, 특정 장소의 식별이라는 서로 다른 정보 요구에 대응한다.

경로 정체성의 대표 표지유형은 목조 지붕의 중합한 내판과 자연석 표지석이 결합된 진입표지이다. 지도·사건·역사정보와 세계유산 표기를 제시하여 진입지점에서 구마노고도의 소속성과 문화유산 정보를 식별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로 정체성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방향 지시의 대표 표지유형은 목적지·화살표·거리와 영문을 표시한 원목형 방향표지이다. 목적지와 남은 거리 및 진행방향을 함께 제시하여 다음 이동경로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방향 지시를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경로 확인의 대표 표지유형은 Kogumotori-goe 구간 의 연속번호형 석재 경로표지이다. 공식 경로지도에는 Koguchi-Ukegawa 구간의 번호표지가 약 500m 간격으로 제시되어 있으며,³³⁾ 현장 번호와 지도를 대응하여 현재 위치와 진행구간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로 확인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다만 현대 번호표지가 과거 왕자의 배치체계를 직접 계승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두 체계를 직접적인 계승관계로 해석하지 않는다.

장소 식별의 대표 표지유형은 대문판 입구의 검은 석재 기념비이다. 대문판은 구마노나치타이사와 나치폭포로 이어지는 약 600m의 석단 구간으로, 지명은 과거 이 부근에 큰 문이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³⁴⁾ ‘大門坂’의 장소명과 세계유산 명칭을 함께 제시하여 특정 구간의 명칭과 진입지점을 식별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소 식별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이상의 기능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30)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Sacred Sites and Pilgrimage Routes in the Kii Mountain Range’, (2026.08.12.) whc.unesco.org/en/list/1142/

31) Tanabe City Kumano Tourism Bureau, ‘History & Oji’, (2026.08.12.) www.tb-kumano.jp/en/kumano-kodo/history-oji/

32) 和歌山県, 『公共事業景観形成ガイドブック』, 和歌山県, 2009, pp.5, 33.

33) Tanabe City Kumano Tourism Bureau, 『Kumano Kodo Nakahechi Route Map: Kogumotori-goe Section—Koguchi—Ukegawa』, Tanabe City Kumano Tourism Bureau, n.d.

34) Tanabe City Kumano Tourism Bureau, ‘Daimon-zaka’, (2026.08.12.) www.tb-kumano.jp/en/kumano-kodo/nakahechi/daimon-zaka/

[표 6] 구마노고도 표지체계의 기능별 분석

항목	분석내용	
표지 사진		
기능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기호 자원	목조 지붕 안내판, 짙은 갈색 목재, 자연석 표지석, 일본어 세로쓰기, 지도·사진·산림 이미지, 세계유산 표기	원목형 표지, 갈색계열, 일본어·영문 지명, 화살표, 거리정보, 세계유산 표기
기능 정보	구마노고도 나카헤치 진입 지점 식별, 경로와 주요 장소의 공간·역사정보 제공	목적지의 진행방향과 남은 거리 제시, 이동경로 선택
문화 코드	구마노 참예도의 종교·역사적 유산, 기이산지의 산림 경관, 세계유산	구마노 참예도, 산림경관, 세계유산, 다언어 안내
의미 작용	목재·자연석과 산림경관의 결합을 통해 경로 정체성을 장소환경과 연결하고, 지도·세계유산 표기를 통해 참예도의 문화유산 정보를 현재의 경로정보로 매개	원목과 갈색계열을 통해 방향정보를 산림환경과 연결하고, 지명·화살표·거리 및 영문 표기를 통해 참예도의 장소정보를 이동정보로 매개
표지 사진		
기능	경로 확인	장소 식별
기호 자원	연속번호, 석재 경로표지, 구마노고도 노선명, 반복 배치, 공식 지도와 대응되는 번호	검은 석재 기념비, 금색 문자, 일본어 세로쓰기, '大門坂' 지명, 세계유산 명칭
기능 정보	현장 번호와 공식 지도를 대응하여 현재 위치·진행구간 확인, 경로의 연속성 재확인	대문판의 장소명과 진입지점 식별, 세계유산 구성구간 안내
문화 코드	구마노고도의 참예도와 산림경관, 순례과정의 단계적 이동	대문판의 역사적 지명, 구마노 참예도, 세계유산
의미 작용	연속번호와 지도 대응을 통해 산악경로를 확인 가능한 이동구간으로 구조화하고, 반복되는 석재 표지를 산림 환경 속 순례경로와 연결	장소명과 기념비 형식을 통해 대문판을 개별 장소로 식별하고, 세계유산 명칭을 결합하여 해당 구간을 구마노고도의 문화유산 체계와 연결

종합하면 구마노고도는 목재·석재 등 산림경관과 조응하는 재료원칙을 공유하면서, 기능에 따라 표지의 형태와 정보구조를 달리한다. 지도·화살표·거리·연속번호·

영문 및 세계유산 표기는 참예도의 문화유산 정보를 현재의 이동정보와 연결한다. 따라서 환경과 유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능별 변이를 수용하는 표지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4-4.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표지체계 분석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보스턴 코먼에서 찰스타운의 벙커힐 기념탑까지 이어지는 약 2.5마일의 역사문화경로이다. 1951년 주요 역사유적을 연결하는 경로가 제안된 뒤 같은 해 보스턴시가 방향표지를 설치하며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58년에는 붉은 선이 추가되고 프리덤 트레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64년 프리덤 트레일 재단이 설립되었다. 1972년에는 찰스타운까지 확장되어 현재의 16개 공식 역사유적을 연결한다.³⁵⁾ 붉은 벽돌선은 보스턴 도심·노스엔드·찰스타운의 역사유적을 연결하며 이동경로를 제시한다.³⁶⁾ 프리덤 트레일의 표지체계는 필기체 노선명, 붉은색, 원형표지와 연속 벽돌선을 공통요소로 사용한다.³⁷⁾

경로 정체성의 대표 표지유형은 'The Freedom Trail' 로고, 전체 경로지도와 주요 유적정보가 결합된 종합안내판이다. 경로명과 전체 이동경로 및 주요 역사유적을 한 지점에 제시하여 프리덤 트레일의 소속성과 역사문화경로의 성격을 식별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로 정체성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방향 지시의 대표 표지유형은 경로명과 화살표가 결합된 원형 바닥마커이다. 경로의 소속성을 함께 나타내지만, 교차로나 방향 전환지점에서 다음 이동방향을 직접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향 지시를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경로 확인의 대표 표지유형은 보도 포장면에 연속적으로 삽입된 붉은 벽돌선이다. 특정 목적지나 개별 유적을 지시하기보다 이동 중 현재 경로와 다음 지점까지의 연속성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경로 확인을

35) The Freedom Trail Foundation, 'Freedom Trail Establishment', (2026.08.13.)

www.thefreedomtrail.org/about/freedom-trail-establishment

36) National Park Service, 'Walk the Freedom Trail', (2026.0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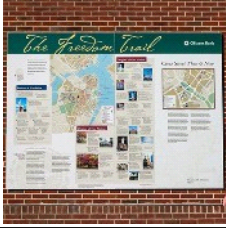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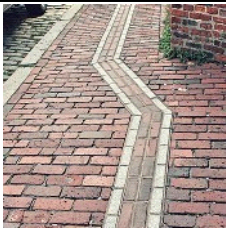
www.nps.gov/thingstodo/walk-the-freedom-trail.htm

37) The Freedom Trail Foundation, 'The Freedom Trail', (2026.08.13.) www.thefreedomtrail.org/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장소 식별의 대표 표지유형은 개별 역사유적에 설치된 깃발형 표지이다. 공동된 형식에 경로명과 개별 유적명을 함께 제시하여 특정 역사유적의 명칭과 위치를 구분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소 식별을 주기능으로 판별하였다. 이상의 기능별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표지체계의 기능별 분석

항목	분석내용	
표지 사진	 	
기능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기호 자원	필기체 'The Freedom Trail' 로고, 붉은색, 전체 경로지도, 현재위치 표시, 주요 유적정보	원형 바닥마커, 'THE FREEDOM TRAIL-BOSTON' 문자, 화살표, 금속재료, 보도면 삽입
기능 정보	경로명·전체 이동경로·현재 위치·주요 역사유적 및 주변 도시정보 제공	프리덤 트레일 경로 식별, 진행방향 제시, 연속 벽돌 선과의 연결
문화 코드	미국 독립과 자유의 역사, 보스턴의 역사유적과 구도심 경관	보스턴의 역사문화경로, 도시 보행환경, 공식 경로표식
의미 작용	경로명·지도·유적정보의 결합을 통해 분산된 역사유적을 하나의 보행경로로 연결하고, 붉은색 시각요소를 경로의 공통 정체성으로 지속	경로명과 화살표의 결합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바닥 마커와 벽돌선을 연결하여 방향 선택과 경로의 연속성을 결합
표지 사진	 	
기능	경로 확인	장소 식별
기호 자원	붉은 벽돌선, 보도 포장면 삽입, 선형 배치, 연속적 반복	깃발형 표지, 'The Freedom Trail' 경로명, 개별 유적명, 스크립트체, 장식요소
기능 정보	현재 경로 확인, 다음 지점까지의 경로 연속성 및 역사유적 간 연결 안내	개별 역사유적의 명칭과 위치 식별, 프리덤 트레일 소속 확인
문화 코드	보스턴 구도심의 붉은 벽돌과 역사건축, 역사유적을 연결하는 도시 보행경로	보스턴의 역사유적, 미국 독립과 자유의 역사, 프리덤 트레일의 역사문화경로

의미 작용	붉은 벽돌선의 물리적 연속성을 통해 분산된 역사유적 사이의 이동경로를 가시화하고, 보도 자체를 연속된 경로표식으로 전환	공동된 깃발형 표지에 경로명과 개별 유적명을 결합하여 각 역사유적을 프리덤 트레일의 연속된 장소체계와 연결
-------	--	---

종합하면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필기체 노선명·붉은색·원형표지·벽돌선 등의 공통요소를 유지하면서, 기능에 따라 점·선·깃발형 표지로 분화한다. 특히 원형 바닥마커와 연속 벽돌선은 방향 선택과 경로 확인을 분담하며 분산된 역사유적을 하나의 보행경로로 연결한다. 따라서 도시의 보도 자체를 역사문화경로의 정보매체로 활용하는 표지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4-5. 동일기능 간 비교분석

앞 절에서는 네 문화적 경로의 표지를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및 장소 식별의 네 기능으로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동일기능이 각 경로에서 어떠한 기호자원과 매체로 구현되며, 표준화와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동일기능 간 비교

표지 기능	제주 올레길	산티아고 순례길	구마노 고도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경로 정체성	코스 번호·현무암·스텝프 시설	조가비·지역문장·다언어 표기	목조 안내판·자연석·세계유산 표기	필기체 노선명·전체 지도·유적정보
방향 지시	파랑·주황 나무화살표	다양한 환경 표면의 노란 화살표	목적지·화살표·거리의 목제 방향표지	화살표가 결합된 원형 바닥마커
경로 확인	파랑·주황 리본	반복되는 조가비 마커	연속번호형 석재 경로표지	연속적인 붉은 벽돌선
장소 식별	'백일홍길' 장소명 표지	갈리시아 경계 표지석	대문판 세계유산 기념비	역사유적 깃발형 표지

경로 정체성은 네 경로 모두 특정 경로의 소속성을 제시하지만, 그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호자원에는 차이가 있다. 제주올레길은 코스 번호와 현무암, 산티아고 순례길은 조가비와 지역기호, 구마노고도는 목재·자연석과 세계유산 표기,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필기체 노선명과 지도·유적정보를 결합한다. 즉 경로 정체성은 상징뿐 아니라 재료·문자·지도와 지역기호의 조합을 통해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

방향 지시는 네 경로 모두 화살표를 핵심 방향기호로 사용하지만 정보량과 적용매체가 다르다. 제주올레

길은 파랑·주황으로 정·역방향을 구분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은 노란 화살표를 다양한 환경표면에 적용한다. 구마노고도는 화살표에 목적지와 거리를 결합하며,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원형 바닥마커를 통해 방향 전환을 표시한다. 따라서 공통된 방향기호는 각 경로의 이동환경과 정보 요구에 따라 색채·정보량·매체를 달리하여 변이한다.

경로 확인에서는 반복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제주올레길의 리본과 산티아고 순례길의 조가비는 동일기호의 반복을 이용하고, 구마노고도는 연속번호와 지도의 대응을 통해 현재 위치와 진행구간을 확인하게 한다.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개별 표지의 반복보다 붉은 벽돌선의 물리적 연속성을 활용한다. 구현방식은 다르지만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기보다 이동 중 현재 경로의 지속성을 확인하게 한다는 기능은 공통적이다.

장소 식별은 공통된 경로체계 안에서 개별 장소의 차이를 구체화한다. 제주올레길은 코스 내부의 장소명을, 산티아고 순례길은 갈리시아의 지역경계를, 구마노고도는 대문판의 장소명과 세계유산 정보를,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개별 역사유적명을 제시한다. 따라서 경로 정체성이 여러 장소를 하나의 경로로 통합한다면, 장소 식별은 그 체계 안에서 구간·지역·유적의 고유성을 구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종합하면 네 경로는 네 가지 공통 표지기능을 공유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기호·자원·재료·정보구조 및 배치는 문화코드와 설치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표준화는 핵심기호와 기능별 정보규칙의 반복을 통해 경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이는 이러한 공통규칙을 각 경로의 장소와 이동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4-6.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적 종합해석

로트만의 관점에서 네 문화적 경로의 표지체계는 각기 다른 핵심기호와 표현원칙을 문화적 중심으로 유지하고, 이를 기능과 장소환경에 따라 변형·번역하는 기호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기호계의 중심은 지배적 코드와 규범을 유지하며, 주변과 경계에서는 이질적인 기호체계와의 접촉을 통해 변이가 발생한다.³⁸⁾ 제주올레길은 파랑·주황과 지역기호, 산티아고 순례길은 조가비와 노란 화살표, 구마노고도는 목재·석재와 산림경관의 관계,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필기체 노선명·붉은색 벽돌선을 중심요소로 유지한다. 따라서 문화적 중심은 단

일 상징뿐 아니라 색채·재료·문자·환경 및 선형구조의 결합으로도 형성된다.

경계와 번역은 이러한 문화적 중심이 이동정보와 장소환경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로트만은 경계를 서로 다른 기호체계의 정보를 변환하는 이중언어적 번역기제로 설명하였다.³⁹⁾ 또한 경로의 진입지점에 설치된 표지는 외부공간과 경로 내부의 문화코드가 접촉하는 공간적 경계로 해석할 수 있다. 산티아고 순례자 안내소의 복합표지와 구마노고도 대문판의 장소표지는 각각 진입지점에서 경로명·상징·장소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외부의 방문환경과 경로 내부의 문화적 의미체계를 연결한다. 제주올레길과 산티아고 순례길은 각각의 공통 색채·화살표를 서로 다른 설치환경에 적용하고, 구마노고도는 지명·화살표·거리·영문을 결합하며,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원형 바닥마커와 벽돌선을 결합한다. 또한 리본·조가비·연속번호·벽돌선과 같은 경로 확인 기호는 나무·벽면·간길·보도 등 서로 다른 환경과 결합한다. 이 과정에서 장소의 물리적 환경은 경로정보를 전달하는 기호매체로 기능하며, 공통기호는 기능과 설치 조건에 맞는 형태로 번역된다.⁴⁰⁾

문화적 기억은 경로 정체성과 장소 식별의 관계에서 구체화된다. 경로 정체성 표지는 여러 장소를 공통된 기호체계로 연결하는 반면, 장소 식별 표지는 장소명·지역명·유적명 및 세계유산 정보 등을 통해 각 지점의 역사·문화적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장소정보는 경로의 공통기호와 결합함으로써 개별 장소의 기억을 전체 경로의 문화적 맥락 안에 위치시킨다. 로트만이 기호계의 지속성을 문화적 기억과 연결한 관점에서 보면, 반복되는 경로기호와 장소정보는 서로 다른 시공간의 문화적 의미를 현재의 표지체계 안에서 연결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⁴¹⁾

앞서 설정한 표준화와 변이의 해석축을 적용하면, 표준화는 핵심기호와 정보규칙을 반복하여 문화적 중심을 유지하는 방식이며, 변이는 이를 기능·재료·설치환경과 지역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제주올레길은 통합된 지역기호를 여러 매체로 전환하고, 산티아고 순례길은 공통상징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기호와 설치방식의 차이를 수용한다. 구마노고도는 환경에 조응하는 재료원칙 안에서 기능별 정보를 달리하며,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물질적 선형구조를 중심으로 점·선·깃발형 표

39) Ibid., pp.208-211.

40) Ibid., pp.208-211.

41) Ibid., p.219.

38) Juri Lotman, Op. cit. 2005, pp.205-208.

지를 기능별로 결합한다. 따라서 변이는 표준화의 이탈 이라기보다 문화적 중심이 장소와 환경의 조건에 따라 번역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⁴²⁾

종합하면 네 경로는 문화적 중심의 유지, 경계에서의 번역과 변이, 장소정보를 통한 문화적 기억의 연결이라는 공통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중심을 구성하는 기호와 이를 이동정보 및 장소환경에 적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각 경로의 고유한 표지 체계 조직원리를 형성한다. 이는 다음 절에서 네 표지 체계를 유형화하는 근거가 된다.

4-7.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유형화

앞선 동일기능 간 비교와 문화기호학적 종합해석을 바탕으로, 네 경로에서 분석한 16개 표지유형에서 나타난 조직원리를 표준화의 중심, 변이 방식 및 문화적 의미의 매개방식에 따라 분석적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유형은 표지의 외형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각 경로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기호적 조직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구분이다.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네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의 유형화

구분	제주 올레길	산티아고 순례길	구마노 고도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
유형	지역기호 통합형	공통상징 분산변이형	환경조응적 유산매개형	물질적 선형 기억연결형
표준화 중심	파랑·주황, 코스 번호, 지역재료의 통합	조가비와 노란 화살표의 지속	산림경관과 조응하는 재료원칙과 기능별 정보체계	붉은 벽돌선과 필기체 노선명 원형 표지
변이 방식	설치환경에 따른 현무암·목재·리본·장소명 표지의 매체 변화	재료·크기·표시방식·설치면의 변화와 지역기호 결합	지형과 기능에 따른 형태·재료·정보 구조 변화	방향·경로·장소 기능에 따른 점·선·깃발형 표지의 분화
문화기호학적 작용	지역의 자연·생활문화 기호를 공통 경로언어로 통합	공통 순례상징을 지역별 환경과 문화에 맞게 번역	참여도·산림경관·문화유산의 현재의 이동정보로 매개	분산된 역사유적과 기억을 물질적 보행선으로 연결

제주올레길의 ‘지역기호 통합형’은 자연환경과 생활문화에서 도출된 기호를 공통된 시각규칙으로 조직하는 유형이다. 현무암 표시물·목재 화살표·리본·장소명 표지

처럼 매체는 달라지지만, 파랑·주황과 코스 번호 및 지역재료의 반복을 통해 기능 간 일관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변이는 통합된 지역기호가 기능과 설치환경에 적합한 매체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공통상징 분산변이형’은 조가비와 노란 화살표라는 공통상징을 유지하면서 지역별 표현의 차이를 수용하는 유형이다. 재료·크기·설치면과 표시방식이 달라지고 지역기호가 결합되더라도 핵심 순례기호는 지속된다. 이는 초국가적으로 분산된 순례경로가 공통상징을 중심으로 연결되면서 지역 환경과 문화에 따라 변이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구마노고도의 ‘환경조응적 유산매개형’은 특정 도상의 반복보다 산림경관과 조응하는 재료원칙과 기능별 정보구조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유형이다. 목재·석재와 주변 환경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도·화살표·거리·연속번호·영문 및 세계유산 정보를 기능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이를 통해 참여도의 문화유산 정보와 현재의 이동정보가 환경에 조응하는 표지체계 안에서 매개된다.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의 ‘물질적 선형 기억연결형’은 도시 보도에 연속된 붉은 벽돌선을 중심으로 분산된 역사유적을 연결하는 유형이다. 원형 바닥마커와 깃발형 장소표지는 벽돌선이 수행하기 어려운 방향 선택과 유적 식별을 보완한다. 따라서 점·선·장소표지가 기능적으로 결합하면서 역사유적과 문화적 기억을 연속된 보행경로로 조직한다.

네 유형은 표준화가 반드시 동일한 외형의 반복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준화의 중심은 지역기호의 통합, 공통상징의 지속, 환경과 재료의 관계 및 물질적 선형구조로 다르게 나타나며, 변이 역시 매체·지역·지형·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유형은 분석한 16개 표지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조직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각 경로의 모든 표지나 모든 문화적 경로에 일반화하는 분류체계는 아니다.

5. 결론

본 연구는 문화적 경로의 표지를 이동정보와 문화적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 기호체계로 보고, 제주올레길·산티아고 순례길·구마노고도·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에서 선정한 16개 표지유형을 비교하였다.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및 장소 식별의 기능별 기호자원·

42) Ibid., pp.212, 219.

문화코드·의미작용을 분석하고, 동일기능 간 비교와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적 해석을 통해 표준화와 변이의 관계 및 각 경로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표지체계의 조직원리를 살펴보았다.

첫째, 네 경로의 표지는 경로 정체성, 방향 지시, 경로 확인 및 장소 식별이라는 공통 기능을 공유하지만, 이를 구현하는 기호자원과 매체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경로 정체성은 공통기호와 재료·문자·지역기호를 통해 경로의 소속성을 제시하고, 방향 지시는 화살표를 중심으로 색채·거리·매체를 달리하여 이동방향을 전달하였다. 경로 확인은 반복기호·연속번호·연속선 등을 통해 이동 중 경로의 지속성을 확인하게 하였으며, 장소 식별은 장소명·지역명·유적정보를 통해 공통된 경로 안에서 개별 장소를 구분하였다. 이는 동일한 기능정보가 각 경로의 문화코드와 장소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기호형식으로 구현됨을 보여준다.

둘째, 표준화는 모든 표지를 동일한 형태와 재료로 통일하는 방식보다 핵심기호와 정보규칙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제주올레길은 파랑·주황과 지역기호, 산티아고 순례길은 조가비와 노란 화살표, 구마노고도는 산림경관과 조응하는 재료원칙,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붉은 벽돌선과 공통 표지요소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반면 변이는 기능·설치환경·지역문화에 따라 재료·크기·형태·정보구조 및 배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화와 변이는 대립하는 관계라기보다 핵심기호와 정보규칙을 유지하면서 이를 장소와 환경의 조건에 적용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관계는 문화적 중심의 유지, 경계에서의 번역과 변이 및 문화적 기억의 연결로 설명할 수 있다. 반복되는 핵심기호와 표현원칙은 경로의 문화적 중심을 형성하고, 화살표·거리·번호·문자·리본·벽돌선 등은 이를 기능과 설치환경에 맞는 이동정보로 번역한다. 또한 진입지점의 표지는 외부공간과 경로 내부의 문화코드가 접촉하는 공간적 경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장소명·지역명·유적정보는 개별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공통된 경로체계 안에 연결한다. 이러한 표준화와 변이는 문화적 중심이 장소와 환경의 조건에 따라 유자·번역되는 관계를 설명하는 해석축으로 기능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제주올레길은 지역기호를 통합하는 ‘지역기호 통합형’의 특성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공통상징을 유지하면서 지역과 환경에 따라 변이하는 ‘공통상징 분산변이형’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구마

노고도는 환경에 조응하면서 유산정보를 이동정보로 매개하는 ‘환경조응적 유산매개형’의 특성이,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은 물질적 선형구조를 통해 분산된 역사유적과 기억을 연결하는 ‘물질적 선형 기억연결형’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러한 유형명은 각 경로의 모든 표지를 포괄하는 고정적 분류가 아니라, 본 연구에서 분석한 16개 표지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표준화의 중심, 변이 방식 및 문화적 의미의 매개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 구분이다.

본 연구는 문화적 경로의 표지계획에서 경로를 관통하는 핵심기호와 정보규칙을 유지하면서도 표지의 재료·형태·배치를 장소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방향 지시와 경로 확인을 구분하여 이동의 선택과 지속을 지원하고, 경로 정체성과 장소 식별을 연계하여 전체 경로의 일관성과 개별 장소의 고유성을 함께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능정보·기호자원·문화코드·장소환경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로트만의 문화기호학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문화적 경로 표지체계를 이해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네 경로에서 목적표집한 16개 표지유형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이므로, 분석결과를 각 경로의 모든 표지나 모든 문화적 경로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공개된 문헌·이미지와 자료가 확보된 범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용자의 실제 기호판독과 이동행동, 표지의 관리·교체과정 및 운영주체의 의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분석대상과 현장구간을 확대하고 이용자 관찰·인터뷰·경로추적 및 운영주체 조사를 병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능체계와 분석적 유형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인 설계지침과 평가도구의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Chris Calori, David Vanden-Eynden, 『Signage and Wayfinding Design: A Complete Guide to Creating Environmental Graphic Design Systems』, 2nd ed., John Wiley & Sons, Inc.,

- 2015
2. ICOMOS, 『The ICOMOS Charter on Cultural Routes』, ICOMOS, 2008
3.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1960
4. Tanabe City Kumano Tourism Bureau, 『Kumano Kodo Nakahechi Route Map: Kogumotori-goe Section—Koguchi-Ukegawa』, Tanabe City Kumano Tourism Bureau, n.d.
5. 和歌山県, 『公共事業景観形成ガイドブック』, 和歌山県, 2009
6. 김지영, ‘금강산 여정의 동적 유산화 - 근대이행기 여행기 속 수행적 모빌리티와 경관 체현 -’,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기전문화연구, 2026
7. 전종한, 『금강산 가는 길』의 유산적 가치와 연구 의제 - 문화 루트(cultural route) 개념을 통한 접근 -,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기전문화연구, 2026
8. 허명진, 한봉호, 박석철, ‘제주 올레길 생태문화자원 경관생태학적 해석기법 연구’,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2021
9. Juri Lotman, ‘On the Semiosphere’, Wilma Clark trans., University of Tartu Press, Sign Systems Studies, 2005
10. Lauren H. Mandel, ‘Attributing and Defining Meaning to the Built Environment: The Semiotics of Wayfinding’, Wiley,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11. Romedi Passini, ‘Wayfinding Design: Logic, Application and Some Thoughts on Universality’, Elsevier Science Ltd, Design Studies, 1996
12. ORDEN de 5 de noviembre de 2015 por la que se modifica el Manual de señalización turística de Galicia aprobado por el Decreto 85/2012, de 16 de febrero, y se regula la imagen y señalética del Camino de Santiago, (Diario Oficial de Galicia, No.220. 2015.11.18.)
13. old01.jejuolle.org
14. whc.unesco.org
15. www.caminodesantiago.gal
16. www.coe.int
17. www.khan.co.kr
18. www.nps.gov
19. www.tb-kumano.jp
20. www.thefreedomtrail.org